

햄 리 트 의 성 격 고 찰

교 양 과

부 교 수 조 권 수

I. 서 론

<햄리트> (The Tragical History of Hamlet, Prince of Denmark)의 현존 초기고본(初期稿本)은 3종이 있다. 이중 제일 4절본(四折本)(Q₂)은 1603년에 출판되었는데, 관객이 무단히 속기하여 된 소위 해적판이다. 제이 4절본(Q₂)은 1604년에 셰익스피어 자필원고에 의하여서 출판된 것으로, 전자보다 거의 배 가량이나 되는 3700여행(餘行)의 길이이다. 1623년의 전집 제일 2절본(F₁)은 자필원고를 토대로 하여 제이 2절본을 참조하여 인쇄된 듯 한데, 전체길이는 3500여행 밖에 되지 않는다. 이 3종의 초기고본 중 제일 2절본이 가장 권위 있는 고본(稿本)이라 하는 견해가 오늘날 서지학자들 간에 대체로 일치된 의견이다.¹⁾

이 희곡은 1598년에서 1602년 사이에 개작을 거쳐 제작된 듯하다. 제작 년대의 내적 증거로서는, 당시의 사건인 극장간의 시비를 위시하여 몇몇 증거를 들 수 있으며, 문체나 극작 기교나 내용상으로 볼 때, 이 희곡은 <줄리아스 시이저>다음에, 그리고 4대 비극 중에서는 가장 처음 집필된 것이다.²⁾

Cambridge 대학의 교수였고 Edmund Spencer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Gabriel Harvey(1545?-1630)는 1598년에 출판된 Speght판 Chaucer의 작품집 여백에 상당히 긴 주석을 써놓았는데, 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The Earle of Essex much commendes Albions England...The younger sort takes much delight in Shakespeares Venus & Adonis: but his Lucrece, & his Tragedie of Hamlet, Prince of Denmarke, have it in them, to please the wiser sort.³⁾

1) 김재남 역주,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저, 셰익스피어, 서울, 을유문화사, 1961, P. 40.

2) 김재남 역주, *Ibid.*, p. 40.

Essex는 1601년 2월 25일에 처형당했고, 또 이 구절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현재 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글은 1601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Shakespeare의 초기작품 대부분에 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는 Francis Meres(1563-1647)의 *Palladis Tamia*가 1958년에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Hamlet*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이 극은 우선 1598년에서 1601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⁴⁾ 그러나 이 극이 암시하고 있는 Wars of the Theatres (II, ii, 324-358⁵⁾)는 Children of the Chapel Royal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소년 극단은 1598년에 Black Friars에서 처음으로 상연을 시작했고, 그 후 1599년에서 1601년 사이에 크게 인기를 얻게 되어 기존 성인 극단에 도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몇몇 성인극단은 지방공연을 위해 London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Wars of the Theatres가 언급되려고 하면 적어도 1599년 이후에 쓰여진 극에 서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Hamlet*는 1599년에서 1601년 사이에 쓰여진 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많은 학자들은 문체상의 특징도 동시에 고려해서 1600년에서 1601년 사이에 쓰여졌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⁶⁾

*Hamlet*극의 가장 오래된 소재는 12세기 후반의 덴마크의 역사학자이며 시인인 Saxo Grammaticus가 쓴 라틴어 판 *Historica Danica*(Danish History)의 제3권 및 제4권 속에 나타난다. 이 *Danish History*는 널리 애독된 책이었으며 그 안에 나오는 햄릿의 이야기를 불란서의 저술가 Francis de Belleforest가 1570년에 불어로 번역하여 그의 저술인 *Histories Tragiques*의 제5권에 수록하고 있다.⁷⁾ 이 영역은 *The History of Hamlet*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1608년의 일이며 셰익스피어의 *Hamlet*의 소재가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셰익스피어의 *Hamlet*극이 인기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유력하다.⁸⁾

어쨌든 상술한 책에 나타난 Hamlet은 거칠고 잔인하여 교양이 있고 신중한 셰익스피어의 Hamlet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생각함이 없이 행동하고 하나는 강한 감수성 때문에 환경에 압도되어 행위의 능력을 잃을 정도이다. 따라서 전자에 있어서는 음산한 공기가 감돌고 후자에 있어서는 우울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전체의 색조가 다른 데다 Saxo의 것과 그 번역본 속에는 유령의 출현도 없고 극 중에서 왕자가 숙부인 왕을 죽이는 장면도 없다.

3) 이덕수 역주, W. 셰익스피어 원작, 햄릿, 서울, 형설출판사, 1993, p. 3. (재인용)

4) 이덕수 역주, *Ibid.*, p. 3.

5) Text의 인용은 T.M. Matterson 편집,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Hamlet, Prince of Denmark*, The World Syndicate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30. 에 의함.

6) 이덕수, *Hamlet*, 서울, 형설출판사, 1993, pp. 3-4.

7) 오화섭, *Hamlet*, 영미작품론, 영미어학총서 7, 서울, 신구문화사, 1967, p. 52.

8) 오화섭, *Ibid.*, P. 52.

극중에 유령이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비극시인 Seneca의 모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극중에 극을 삽입하여 어떤 사람의 심중을 정탐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Thomas Kyd가 *Spanish Tragedy*(1587)에서 시험한 수법이였다.⁹⁾ 셰익스피어는 이런 수단을 선인들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amlet*은 가장 유명할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비극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오늘날 평가들 중에는 *Hamlet*의 예술적 실패를 주장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는 신기(新奇)를 찾는 피벽이 아니면 자연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바로보지 못한 탓이겠다. 다른 어떤 희곡보다도 셰익스피어는 현실의 영상을 이 작품에서는 절실하게 재현시켰으며, 다른 어느 작품보다도 강력히 우리의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Hamlet*에 관해서는 셰익스피어의 어느 작품보다도 논쟁이 분분하였으나, 자연적이며 상식적으로 그리고 소박하고 솔직하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 학자들이 당혹한 바와 같은 심혹(深酷)한 문제는 쉽게 해명될 듯하다. *Hamlet*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인상을 받는다. 첫째 *Hamlet*은 인간 예찬자이다. 군인, 학자, 신하들에 대한 예찬자이다. 또한 그는 용감하고, 철저하고, 미덕을 지닌 훌륭한 인간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Hamlet*안에 우리와 공통한 인격을 발견한다, 이것은 아마 범인의 그것보다는 위대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 그리고 *Hamlet*은 갖가지 상호관계 속에 처해 있으나, 이 관계 또한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이다. 누구나 우인, 적, 친척, 사회, 신(神)등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인연속에 처해있는 존재인데, 비극의 주인공 중에서 *Hamlet*만이 위에서 열거한 인연들을 모두 지닌 인물이다. 그에게는 친구와 적과 애인이 있고, 아직도 뇌리에 아물거리는 망부와 재가한 모친이 있으며 왕자라고 하는 정치적 영역이 있다. 연극의 시작부터 막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인간 지혜밖의 불가사의한 세계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Hamlet*이 왜 복수를 지연하였는가? 이것이 *Hamlet*극의 초점이라 하겠는데 종래 여러 학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이 숙제를 풀고자 애써 왔거니와, 이와 같이 복잡한 환경속에 처해있는 *Hamlet*이 어찌 간단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인생항로에서 상상도 않던 충동을 경험할 것이며 아무리 무지하고 내성적이 아닌 성격의 경우에도 주위현상에 당혹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심리적으로 감상하면 *Hamlet*의 성격상의 모순 당착은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듯이 시공을 초월한 이극의 위대성인즉, 흔히 있을 수 있는 성격의 형을 발견하여 이를 다양하게 성공적으로 전개시킨 셰익스피어의 솜씨 탓이라 하겠다. *Hamlet*은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모든 인물을 한 몸매 지닌 성격이다. 그는 명상적 이요, 행동적 이요, 이상가요, 현실주의자요, 이성과 감정을 모두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상징주의 평가에서 말하듯이 그는 과연 죽음의 사자나, 생명의 이미지나, 아무튼 *Hamlet*의 비극은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간극이다.¹⁰⁾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셰익스피어가 그리고 있는

9) 오화섭, *Ibid.*, p. 53.

10) 김재남, *Shakespeare 論*, 영미희곡수필평론, 영미어학문헌총서 5, 서울, 신구문화사, 1967, p. 102.

Hamlet의 성격과 *Hamlet*이 17세기초에 상연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300여년 간에 걸쳐 비평가들이 이 희곡을 어떻게 보아왔는가를 더듬어 보고 Hamlet의 성장 과정과 성격 특성 및 그의 종교관에 치중하여 소위 Hamlet의 성격 문제를 다음 본론에서 기술 하고자 한다.

II. 본 론

영문학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을 통틀어서 *Hamlet* 만큼 빈번히 상연되어온 극이나, 많이 읽히고 연구되어 온 작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이 극은 흔히 「Sphinx」에 비유되고, 「Leonardo's Mona Lisa」라고 불리우리 만치 여전히 많은 신비를 내포하고 있다.¹¹⁾ 지금까지 허다한 비평가와 주석자들에 의하여 이 극은 광범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언제나 Hamlet의 성격이 주로 그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Hamlet은 이제 그의 극을 읽거나 구경한 일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그는 극 속에 나오는 한 가공인물이 아니라, 마치 실제 인물인양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들과 친근한 인물로 느껴지고 있다. Shakespeare가 묘사해놓은 Hamlet의 성격은 너무나 신비하고 복잡하며, 건잡을 수 없으리 만치 모순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에, 그것에 대한 고찰이 아무리 많이 행하여 왔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말하여 졌다고 볼 수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하기란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 극 속에는 유령의 등장, 근친상간, 발광한 여인, 묘지에서의 격투, 독살, 그리고 여덟 사람의 비참한 죽음 등, 피와 공포를 갈망하던 당시의 관객들이 기대하였을 듯 한 복수극의 전통적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¹²⁾

1. 외로운 처지에 있는 Hamlet

연극이 시작되는 첫 장은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특히 걸작이라는 정평을 받고 있다. Hamlet의 등장에 앞서 그가 처해 있는 극적 상황은 미리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아울러서 그 상황이 그에게 과하는 임무의 성질을 암시하므로써, 완벽에 가까운 극의 도입부를 이루고 있다. 첫 줄 부터 연속적으로 뛰어 나오는 의문문들은 긴박하고 신비에 찬 분위기를 자아 내어준다. 막 자정을 지난 한밤중 지독한 추위속에, 달도 없고 차가운 별들 만이 북극의 하늘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교대

11) Jan Kott,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New York, London, 1974, P. 58.

12) 김광호, "Hamlet 재평가 -주인공의 성격을 中心으로-",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한국영어영문학회 38, 1971, p. 39.

하는 보초들이 서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Denmark의 왕궁은 신비스럽고 불안스러운 어둠 속에 싸여 있다, 어제 밤에는 유령이 나타났으며, 오늘 밤에도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터라 그것을 자기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실제로 유령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국가에 어떤 괴변이 일어날 징조라고 말한다.

But, in the gross and scope of my opinion,
This bodes some strange eruption to our state. (I, i, 68-69)

이 때 Denmark는 소연한 정세에 처해 있으며, Norway의 왕자 Fortinbras는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 보고 있다. 그러나 Denmark가 처해 있는 위기는 본래 외환에 있기 보다 內患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극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명백하여 지지만, 유령의 빈번한 출현도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Hamlet가 유령의 출현 소식을 들었을 때,

My father's spirit in arms! all is not well;
I doubt some foul play : would the night were come! (I, ii, 255-256)

라고 말하며, 또 Marcellus 도

Something is rotten in the state of Denmark. (I, iv, 90)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유령은 그 배후에 부정과 부패를 내포하고 있다.

제1막 2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앞 장면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암울한 분위기에서 일전하여, 무대는 화려한 궁정 내부로 옮겨지고, 유령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전개된다. 왕과 왕비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등장하는데 모두가 성장하고 있다. 이 화려한 대열 속에 오직 한 사람, 검은 상복을 입은 Hamlet이 섞여있는데, 우선 그 모습부터 주위의 분위기와 융합되지 않으며, 아직 유령의 출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깊은 우울에 잠겨있다. 나중에 그의 광채를 보고 Ophelia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O, what a noble mind is here o'er thrown!
The courtier's, soldier's, scholar's eye, tongue, sword;
The expectancy and rose of the fair state,
The glass of fashion and the mould of form,
The observ'd of all observers, - quite, quite down! (III, i, 158-162)

여기에서 우리는 Denmark의 황태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상적인 Renaissance 신사를 추론할 수 있다. 그는 왕자로서 학자와 무사를 겸하였으며, 유행계와 도덕계의 모범이 될 만큼 미적, 도덕적 감수성을 함께 지닌 인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원만히 조화된 인간인, Hamlet이 왜 무대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그와 왕 사이에 오가는 최초의 대화 속에서 밝혀지기 시작한다.

King: But now, my cousin Hamlet, and my son,-

Ham: <Aside> A little more than kin, and less than kind.

King: How is it that the clouds still hang on you?

Ham: Not so, my lord; I am too much i' the sun. (I, ii, 64-67)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Claudius에게 빼앗긴 Hamlet에게는 심리적인 충격이 대단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도 쉽사리 숙부와 불륜의 결합을 하고 왕이 자신을 그의 부친이라고 자칭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She married : - O, most wicked speed, to post

With such dexterity to incestuous sheets! (I, ii, 162-163)

형제간이나, 가까운 친척 중 자기 또래의 친구가 없었던 Hamlet에게는 Ophelia는 자기의 친구 겸, 연인 겸, 여동생 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성으로서도 충분히 가까워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Ophelia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로 인해 이성을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며, 그 보다는 차라리 Ophelia는 단지 청순하고 순종한 편이어서 자기의 깊숙이 파묻혀 자꾸 되살아 나는 고뇌를 서로 시원히 얘기하고 씻어 줄 만큼의 Hamlet과 비슷한 정도의 지성을 갖추지 못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짐짓 감정에는 사로 잡히지 않던 Hamlet도 Ophelia가 자살하고 말자, 그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완전 외톨이가 되 버린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곁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Ophelia를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다음 고백에서 볼 수 있다.

Ham: I lov'd Ophelia; forty thousand brothers

Could not, with all their quantity of love,

Make up my sum. -What wilt thou do for her? (V, i, 270-272)

이렇게 참담한 Hamlet의 심정을 Horatio는 달래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 했다. Ophelia의 romantic love에서 깊은 정도까지 사랑을 맞보지 못하는 성질이기에, 어쩌면 Horatio가 지적인 교제를 해 줄 수도 있련만, 그러나 왕자라는 사회적 지위는 친구간에도 가슴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끔 벽을 헐어 버리지는 못 했다. 이 처럼 Horatio는 Hamlet을 따라다니고, 그의 주

위를 맴도는 존재이지 결코 동등한 위치에 서서 격의 없는 조언을 주고, 서로를 이끌어 주는 사이는 아니었다.

2. 망상에 사로잡힌 Hamlet

이런 상황에 있는 Hamlet에게는 오직 자살 아니면 복수 둘 중의 하나를 택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는 결국 복수라는 수단을 택하고 만다.

Ham: I am very proud, revengeful, ambitious;
 With more offenses at my beck than I have thoughts to put them in,
 Imagination to give them shape, or time to act them in. (III, i, 134-137)

더구나 자기 아버지 혼령이 자기에게 "Adieu, adieu! Hamlet, remember me."-("잘 있어, 잘 있어, 햄릿아, 나를 기억해 다오") (I, v, 98)라고 하는 말이 귓전에 언제나 울려오고 있으니, 그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ghost를 단순히 혼령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Hamlet의 양심의 소리, 정의의 소리로 봐야 하며, 그가 복수의 결심이 식어질 때 나타나서 그를 채찍질 해 주는 회초리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Hamlet에게 복수 하도록 내 물면서, 자기 어머니는 해쳐서는 안된다고 상기 시켜 주는 천륜의 소리이기도 하며 언제나 자기를 지켜 보기도 하는 감시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Hamlet은 자기 자유의지에서 행하는 인간 이라기 보다는 어떤 타의 힘에 의해서 이끌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다.

Dr. Johnson같은 이는 "주인공은 전편을 통해서 작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용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의 양광(佯狂)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가 가장 미친 척하는 것은 Ophelia에게 지독한 말을 퍼붓는 장면이지만 이건 없었으면 싶은 잔인한 짓이다"라고 말했다.¹³⁾

Charles Lamb의 유명한 Shakespeare비극의 상연 불가능론이라든지 Hazlitt의 "우리는 시인, 셰익스피어의 작품 상연을 보는 것은 싫다. 특히 Hamlet의 상연은 더욱 보기 싫다."라고 한 말은 보는 극이 읽는 극으로 변모해 가는 일면을 말해 준다.¹⁴⁾ 때로는 기괴한 해석까지 하게 되는 이들의 소위 과도비평은 온전주의자인 A.C. Bradley에게도 다소 나타나 있다. Bradley는 다음과 같은 우울설을 내 세우고 있다.

"왕자가 부친의 유령으로부터 가공할 계시를 받은 것은 불행히도 그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을 때였다." ¹⁵⁾

13) 김재남, *op. cit.*, p. 54.

14) 김재남, *Ibid.*, p. 54.

15) 김재남, *Ibid.*, p. 54.

3. 완전주의자인 Hamlet

Hamlet는 완전주의자이고, 순수주의자인 면이 다분하다. 세상 어디를 봐도 추하고 더럽고 정직과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의 인생관은 병적으로, 부정적으로 되 버린 것이다.

Ham. : Ay, sir; to be honest, as this world goes, is to be one man
picked out of ten thousand. (II. ii. 196-197)

그 반면 Hamlet은 자기자신을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가 못하다.

“The moment one inquires about the sense or value of life, one is sick”(Freud)¹⁶⁾

라는 말처럼, Hamlet 자신도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Ham. : What should such fellows as I do crawling between heaven
and earth ?
We are arrant knaves, all; believe none of us. (III, i, 136-139)

Hamlet의 눈에는 Ophelia만이 가련할 정도로 깨끗하며, 그러므로 자기에게는 여러모로 과분하다고 믿는다. 단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Ophelia에게 맞는 배필이 되겠거나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수녀원으로 가도록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여자는 본질적으로 부정하므로 수녀원에라도 가지 않으면 순결을 지키지 못 하며, 오직 ‘바보’만이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무능해서 모르는 척하고, 뱃속 편케 살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monster’란 부인이 바람피우면 남편은 귀신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는 결국 자기 어머니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Ophelia에게 억울하게 내 뱉는 것이지, 결코 그녀가 부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Ham. : Get thee to a nunnery, go; farewell.
Or, if thou wilt needs marry, a fool;
For wise men know well enough what monsters you make of them.
To a nunnery, go; and quickly too. Farewell. (III, i, 147-150)

Hamlet이 망대에서 Horatio와 Marcellus와 함께 유령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을

16) 李廷鎬, “A note on Hamlet’s Revenge”, Th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 한국영어영문학회, 1973, P.81. (재인용)

때, 궁정에서는 주연이 배풀어지고, 왕이 술잔을 들이킬 때마다 북을 치고 대포를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Hamlet은 여기에서 Denmark 국민의 음주의 풍습을 신랄히 비난한다.

But to my mind,- though I am native here,
And to the manner born,- it is a custom
More honour'd in the breach than the observance. (I , iv, 14-16)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의 악습을 마치 자기 자신의 죄악이라도 되는 듯이 부끄러워하는 Hamlet에게서, 우리는 비뚤어진 현실을 예사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그의 예민한 도덕적 감수성과, 고귀한 이상주의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4. 실존주의자로서 Hamlet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Hamlet의 특성은 결국 Hamlet가 실존주의자(existentialist)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데 근거가 된다. 그는 마치 Franz Kafka, *Die Verwandlung* (1961)의 주인공 Gregor Samsa가 갑자기 변신되는 순간 실존을 느끼는 것처럼, 실존의 자기 아버지의 ghost는 Hamlet의 분신 또는 실존의 의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에만 해도 “풍속의 거울이고, 예절의 모범”(III, i, 163)이었던 Hamlet는 웬 셈인지 까닭도 모르게 “근자에 내가 만사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평소에 즐겨하던 운동경기도 다 포기하게 됐지, 항상 심사가 우울해져서, 이렇듯 수려한 산천대지도 황량한 꽃처럼 느껴지고, 저 대기 굉장한 천개도, 머리위의 찬란한 창공, 불같은 황금의 별들로 아로새겨진 장엄한 천장, 바로 저것이 무슨 치명적인 독기덩어리 같이만 보이게”(II, ii, 311-318)됐고, 세상은 “홀륭한 감옥”(II, ii, 262)이고, “잡초만 우거진 뜰“이요 인간은 죽으면 구더기에 먹히고 마는 “먼지의 정수“(II, ii, 323)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실존의 병을 호되게 앓고 있는 Hamlet는 가슴 속의 답답한 심경을 그의 유명한 ‘To be or not to be’ 독백에서 토로하고 있다. Jan Kott씨는 그의 저서 *Shakespeare our Contemporary*에서 “to be or not to be”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To be’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하여 왕을 살해할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not to be’는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 라고 했다.¹⁷⁾

Hamlet이 비극적 종말에 이르는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Hamlet의 현실을 생각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에서 악은 주인공 자신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주인공 자신의 어떤 성격적 결함에서 유발되거나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현실의 악은 주인공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Hamlet에서 현실의 악은 Hamlet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악에 대해서 Hamlet은 전혀 결백할 뿐

17) Jan Kott, *op. cit.*, p. 62.

아니라 악의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러한 그에게 악의 제거라는 복수의 임무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Hamlet이 만일 그러한 현실에 살지 않았더라면 그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악으로 부터의 도피는 가능 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악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Hamlet은 악으로부터 결코 도피하지 않을 뿐아니라 적극적인 악과의 투쟁에 자신의 일생을 희생한다. 인간은 현실의 한 구성분자로써 현실속에 살고 있는 만큼 현실에 존재하는 악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되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악과의 투쟁을 의미하는데 악과의 투쟁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적극적인 투쟁으로서 악의 제거요,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투쟁으로서 악에 대한 유혹의 극복을 의미한다. 소극적 투쟁에 있어서 투쟁의 대상은 보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만큼 희생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적극적인 투쟁에 있어서 그대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희생이 따른다. Hamlet은 그러한 투쟁의 희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

5. 신앙심이 깊은 Hamlet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Hamlet은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겠으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후에 자살이라는 중죄가 가져올 무서운 벌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점은 그가 비겁하고 용기 없는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다. 이 극이 씌어진 시대에는 기독교가 사회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거의 의심없이 믿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 극의 주제인 복수라는 관념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사고방식이며 셰익스피어는 이런 기독교적인 요소와 이교적인 요소를 자기의 의도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관객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그의 천재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의 무상을 알고 있는 Hamlet이기에 더욱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 애착을 느끼지 않으며, 그러므로 무모하리 만 큼 이 Hamlet의 '실존의 병'은 Claudius의 안위에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한다. 아버지에게서 숙부가 살인자이며 흉악한 호색한이란 것을 안 Hamlet가 어떤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되어 마치 쇠파리처럼 백성의 양심을 일깨우는 날이면 그나마 기반이 튼튼히 잡히지도 않은 처지에 있는 Claudius에게는 화불단행(禍不單行)적이 되므로, "그를 그대로 나누면, 모든 사람이 다 큰 화를 입겠으니" (IV, i, 16) 그를 기어코 처리해야 된다고 결심하게 까지 된다. 그러나 이런 위협천만한 인물을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단히 처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무고하게 Hamlet이 처단할 경우 국민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Hamlet에게는 완전복수만이 실존의 확인 수단으로서의 '행동적 니힐리즘'

18) 이정완, "Hamlet As a Scapegoat",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5, 한국영어영문학회, 1968, P.19.

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처음부터 이 극은 이런 목적을 향해 내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Hamlet에게 하는 혼령의 첫 말에서 뚜렷해 진다.

I am thy father's spirit;
 Doom'd for a certain term to walk the night,
 And, for the day, confin'd to waste in fires.
 . . .
 To ears of flesh and blood. -List, list, O, list!-
 If thou didst ever thy dear father love,- (I, v, 14-30)

여기서 완전복수란 Claudius를 연옥이 아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지옥에 빠뜨리는 것과, 반면에 자기 어머니는 Claudius의 공모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회개케 하며 선의 길로 이끄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 된다.

1막5장 81-95행에서 보듯이, 분신으로서의 유행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숙부의 손에 죽었으며, 그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 억울함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죄 중에 죽게 했으므로 연옥에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다. 복수의 불길을 강렬하게 부쳐 주는 동시에 천륜에 어긋나는 불효를 어머니에게 하지 않도록 근엄하게 타이르는 것이다. 전통적인 구교 교리에 따르면, 멸망의 죄는 자유의지에 의하여 죄가 중대함을 분명히 알면서 신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며, venial sin(小罪)은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결여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천당에는 대죄나 소죄, 어느 하나도 없는 이가 가는 것이고, 지옥에는 그 반대로 대죄인(大罪人)만 가는 곳이며, 소죄나 혹은 보상을 다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연옥에 가서 보상을 다하여 깨끗하게 되면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다. Hamlet의 아버지는 지금 연옥에서 보상을 치루고있는 중이다. 세상에서의 죄는 회개하면 예수의 수난의 피값으로 깨끗이 없어지는데 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보상까지도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나, 또는 연옥에서 언젠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극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특별한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신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V, ii, 218-219)고 전통적인 교리를 믿고 있는 Hamlet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비를 간음한 자가 내 앞에 불쑥 나타나서 내 대통 이을 길을 막고, 내 목숨을 해치려고 간책을 쓰니, 이런 놈은 이 손으로 처치해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또 양심상 떳떳한 일이 아니겠는가?”(V, ii, 71-75)라고 자기 복수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Hamlet은 그의 어머니의 침실로 가는 도중 Claudius를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났었다는 것은 종래까지의 이론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우유부단한 것이라고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가 기다리는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 하기 위한 2보 후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은 다음 인용문에서 명료하게 볼 수 있다.

Ham.: Now might I do it pat, now he is praying;
 And now I'll do't-and so he goes to heaven;
 And so am I reveng'd:- that would be scann'd:
 A villain kills my father; and for that,
 I, his sole son, do this same villain send to heaven.
 O, this is hire and salary, not revenge. (III, iii, 76-82)

그리고는 Claudius를 한사코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다음과 같이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Ham.: No.
 Up, sword; and know thou a more horried hent:
 When he is drunk, asleep, or in his rage;
 Or in the incestuous pleasure of his bed;
 At gaming, swearing; or about some act
 That has no relish of salvation in't;-
 Then trip him, that his heels may kick at heaven;
 And that his soul may be as damn'd and black
 As hell, whereto it goes. (III, iii, 90-98)

이렇게 하여 Claudius로 하여금 “최후참회도 갖지 못하게”(V, ii, 51)하고자 하는 것이 그가 바라는 최종 목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주의자인 Hamlet가 바라는 무시무시한 완전복수의 참뜻이며, 이 목표를 포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결단성이 없고 우유부단한 인간으로 보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고 Claudius를 극의 마지막에서 결국 죽이게 되는 것은 완전복수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단정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지만, 죄란 행위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도 더욱 큰 것이 될 수 있으니, Claudius가 Hamlet로 하여금 부당하게 Laertes와 결투하게끔 일을 꾸며 놓은 것은 명백한 중죄의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Hamlet가 바라던 최선의 완전복수는 안될지 모르지만, Claudius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복수라는 행위는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박애주의에 전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선이긴 하지만, 그러나 Hamlet의 성격과 인격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귀결인 것이다 또한 복수라는 것이 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택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Hamlet자신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비극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완전주의자이고 순결자인 Hamlet이 완전복수를 기도하고 있으며, 그가 최적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둘 중의 하나 박애냐, 정의냐를 결국 택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고통중에서 많은 주저가 있을 것이다. 완전이란 따지고 보면 완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되고, 복수가 완전이라면,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자멸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Hamlet의 “고귀한 정신이 깨어지고 마는”(V, ii, 385), 비극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

6. 용감하고 철저한 Hamlet

Hamlet는 좌절당하고, 침울하고, 의심이 많고, 내향적이며, 기지에 차고, 자기분석적이며, 고독하고, 이기적이며,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고상하고 때때로 용기가 있으며, 프라이드가 강하고, 적대적인 환경에 포위되어있는 왕자다.¹⁹⁾

위에서 언급했듯이 Hamlet은 흔히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되어 왔지만, 유흥이 나타나자 그는 놀랄 만치 용감한 청년임을 보여준다. 유흥이 묵묵히 그에게 손짓하며 으스스한 장소로 유인하려 하자, 친구들은 가지 말도록 그를 만류한다. 친구들은 악마로 알고 있으며, Hamlet 자신도 그런 의심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는

Why, what should be the fear?
I do not set my life at a pin's fee;
And for my soul, what can it do to that,
Being a thing immortal as itself?
It waves me forth again; -I'll follow it. (I, iv, 64-68)

라고 말하며 뒤 따르려고 한다. Horatio는 유흥이 그를 위험한 장소로 유인하여 발광케 하거나, 죽음으로 이르게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듣지 않는다. 친구들이, 못 가게 굳이 붙잡자 그는 칼을 빼어들기까지 하며 외친다.

My fate cries out,
And makes each petty artery in this body
And hardy as the Nemean lion's nerve.-
Still am I call'd;-unhand me, gentlemen:-
By heaven, I'll make a ghost of him that lets me.
I say, away! -Go on; I'll follow thee. (I, iv, 81-86)

그리고는 기어코 유흥의 뒤를 따라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무사다운 Hamlet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만약 그가 나약하고 비굴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유흥의 입에서 비열한 암살의 진상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Hamlet은 젊은이답게 격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빨리 사실을 말 해 주도록 유흥에게 재촉한다.

19) 이재호, “現代人에게 있어서의 Hamlet의 魅力 - Hamlet과 Stephen Dedalus의 比較 -” Th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19, 한국영어영문학회, 1966, p.21.

Haste me to know't, that I, with wings as swift
As meditation or the thoughts of love,
May sweep to my revenge. (I, v, 29-31)

여기에는 유령의 이야기를 듣고 받은 충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복수를 향하여 돌진하려는 Hamlet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일면이 나타나 있다. 유령의 무서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Claudius의 가장 비열하고 인륜에 벗어난 행위가 폭로되기 시작하자 Hamlet은 자기 가슴속에 품어 온 예감이 적중한 것에 새삼스레 놀란다.

Oh my prophetic soul! mine uncle! (I, v, 40)

이것은 그의 예민한 직감력을 보여주는 좋은 한 예가 될 것이다.

유령은 자기가 비열한 Claudius에 의하여 독살되고, 왕관과 여왕을 함께 탈취당했음을 폭로하고, 사라지기 전에 Hamlet에게 복수할 것을 명령한다

If thou hast nature in thee, bear it not;
Let not the royal bed of Denmark be
A couch for luxury and damned incest.
But, howsoever thou pursu'st this act,
Taint not thy mind, nor let thy soul contrive
Against thy mother aught: leave her to heaven,
And to those thorns that in her bosom lodge,
To prick and sting her. (I, v, 81-89)

이 명령 속에는 Hamlet이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Denmark의 왕위를 불의와 음탁의 자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물론 Claudius를 제거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에 매진할지라도 마음을 더럽히거나 모친에게 해를 입히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유령은 이미

Murder most foul, as in the best it is: (I, v, 27)

라고 말한바 있으므로, "Taint not thy mind"를 정의에 입각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유령은 비열하지 않은 복수를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게다가 모친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복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할 때, Hamlet에게 부과된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Hamlet은 유령이 사라지자 극도로 혼란되고, 그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정신 상태에 빠지며, 뿌리 채 흔들리는 몸과 마음을 가누려고 애쓴다.

O all you host of heaven! O earth! What else?
 And shall I couple hell? - O, fie!- Hold, my heart;
 And you, my sinews, grow not instant old,
 But bear me stiffly up. remember thee! (I, v, 92-95)

그리고는 복수를 굳게 다짐하며 부친의 유행이 내린 명령 이외의 모든 것을 기억에서 다 지워 없앨 것을 맹세하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수첩에 적어두기 까지 한다.

Remember thee!
 Yea, from the table of my memory
 I'll wipe away all trivial fond records,
 All saws of books, all forms, all pressures past,
 That youth and observation copied there;
 And thy commandment all alone shall live
 Within the book and volume of my brain,
 Unmix'd with baser matter: yes, by heaven-
 O most pernicious woman!
 O villian, villain, smiling, damned villain!
 My tables, -meet it is I set it down,
 That one may smile, and smile, and be a villain;
 At least I am sure, it may be so in Denmark: [Writing]
 So, uncle, there you are. Now to my word. (I, v, 97-110).

이것은 Hamlet이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기 는 하지만 솔직한 그의 심정을 토로한 말이다. 모친의 재혼에 대한 그의 감정도 그러하였지만, 부친을 위하여 복수를 다짐하는 감정도 단지 외부에서 과해지고, 자식으로서 느끼는 의무적인 감정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신 전령을 뒤흔드는 진지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Hamlet은 뒤쫓아온 Horatio와 Marcellus에게, 앞에서 그들이 유행의 출현을 알리려 왔을 때 그랬던 것과 같이,²⁰⁾ 또 한번 그것에 관하여 일체 비밀을 지켜 주도록 요구하며 맹세까지 시킨다. 이어서 그는 자기 앞으로 "antic disposition"(기괴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는데, 그 원인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아는 체 하지 않도록 다시 맹세시킨다. 여기에서 그의 철저한 성격을 볼 수 있다.

As I perchance, hereafter shall think meet
 To put an antic disposition on.- (I, v, 170-171)

그러면 Hamlet은 왜 유행의 출현과 자기의 행동이 비밀에 붙여지기를 고집하며, 또

20) 김광호,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amlet 재평가 -주인공의 성격을 中心으로-",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1971, p. 53.

“antic disposition”을 취할지 모른다고 예고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 극은 독자에게 아무런 해답도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비밀의 보장은 Claudius의 의심을 사서 자기의 목적달성이 저지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antic disposition”을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양광」의 뜻으로 해석하면, 자기의 의무수행에 많은 곤란이 따를 것을 막연히 예측하고 적의 눈을 속이므로 써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모친을 노출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은 복수를 수행하라는 유흥의 명령을 생각하면 이 해석에 수궁이 간다 또 한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Hamlet은 유흥을 만난 후 잠시동안 극도로 흥분하여, Horatio가

These are but wild and whirling words my lord. (I, v, 133) .

라고 말하고 있듯이 친구들에게도 이상한 언동으로 대하였는데, 자기에게 부과된 무거운 의무를 다시 생각해 보며, 앞으로도 다시 그러한 「기괴한 행동들」을 취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²¹⁾ 아마 “antic disposition”에는 이상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여간 Hamlet은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겁다.

The time is out of joint: O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I, v, 189--190)

Goethe는 이 비통한 말 속에 Hamlet의 성격을 여는 열쇠가 숨어 있다고 보고,

“To me it is clear that Shakespeare meant,
in the present case, to represent the effects
of a great action laid upon a soul unfit
for the performance of it. In this view the whole
piece seems to me to be composed.
There is an oak-tree planted in a costly jar,
which should have borne only pleasant flowers
in its bosom; the roots expand, the jar is shivered.”²²⁾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의 Hamlet관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Shakespeare가 이 극에서 묘사하려고 시도한 것이 무능력자에 과해진 큰 임무가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의 대사에서 Hamlet이 자기의 의지박약이나 의무수행의 회피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는 커다란 용기와 능력을 지녔지만 지금 부과된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을 것

21) 김광호, *op. cit.*, p. 53.

22) 김광호, *op. cit.*, p. 54. (재인용)

이다.

Hamlet은 영국으로 항해 중 자기의 행동과, 또 우연의 도움을 받아 다시 Denmark로 돌아온다. 그가 나중에 Horatio에게 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Rosencrantz와 Guildenstern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왕의 친서를 꺼내어 보고 영국에 도착즉시 자기를 처형하라는 내용을 확인하자, 두 배반자들을 처형하라는 내용으로 바꿔 쓴 다른 편지와 교환해 놓는다. 그 다음에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그는 제일 먼저 그 배에 뛰어 오르는데, 그 순간 두 배가 떨어져서 그는 혼자 해적들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Hamlet의 신분을 알자 무사히 Denmark로 그를 실어다 준다. 이러한 모험을 겪는 동안에 Hamlet이 취한 처사는 그의 성격의 여러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위선 왕의 친서를 바꿔 치기 할 전후의 그의 심정을 그는 Horatio에게 이렇게 말한다.

Sir, in my heart there was a kind of fighting,
That would not let me sleep: (V, ii, 4-5)

이것은 이 극 전체를 통하여서 본 그의 심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어서 그는 왕의 편지를 바꿔칠 때의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말한다.

Rashly,
And praised be rashness for it, let us know,
Our indiscretion sometimes serves us well,
When our deep plots do fall: (V, ii, 6-9)

그는 여기에서 자기의 행동이 무분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행동에는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Polonius를 살해할 때도 그러하였고, 또 해적선에 혼자 뛰어오르는, 무모한 행동 역시 그러하다. 그는 명상만 일삼는 비 행동가는 결코 아니며, 자신의 걱정에 의하여 자극 받을 때는 어떤 위험한 행동이나 잔인한 행위도 서슴지 않을 만큼 힘과 정열에 넘쳐있다. 따라서 배반자가 된 두 학우를 사지로 보내 놓고도 그는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Why, man, they did make love to this employment,
They are not near my conscience; their defeat
Does by their own insinuation grow:
'Tis dangerous when the baser nature comes
Between the pass and fell incensed points
Of mighty opposites. (V, ii, 57-62)

이것은 추방되기 전에 이미 그가 이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모친에게 말하는 격렬한

대사와 23)함께, 친구라도 일단 배반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의 냉혹한 성격의 일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Ⅲ. 결 론

이상과같이 Hamlet의 모순에 찬 복잡하고도 신비스러운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이 모순과 신비는 그의 성격이 서로 상반되는 양면을 지니고 있는데서 나오며, 그의 성격에 어떤 한 특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것과 정반대되는 특성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극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울에 잠겨 있으며 극의 많은 장면에서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흔히 그를 우울증 환자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울이 그의 성격의 한 주요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수성이 강한 대학생인 그가 존경하던 부친의 죽음을 당하여 귀국하였을 때 타락과 부패에 물든 조국을 보았다. 더욱이 부친의 장례식을 끝내기가 무섭게 모친은 돌아가신 부친과는 비교도 안되는 야비한 숙부와 근친상간적인 결혼을 하였다. 아들로서, 왕자로서 인생의 추악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고 그가 우울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천성이 우울한 인간은 아니다. 그는 Horatio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는 언제나 즐겁게 대하며, 무덤과는 일군과 같은 악의 없는 인간과 대할 때는 익살맞은 유우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쾌활한 인간이다.

그는 인생과 인간을 혐오하는 비관주의자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놀라운 가능성, 그리고 인생의 무한한 신비를 찬미할 줄 아는 낙관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는 넓고 깊은 교양과 섬세한 미적 감수성을 지닌 지성인이며, 여러 독백 속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넘쳐흐르는 풍족한 상상력을 지닌 공상가이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고의 탓으로 우유부단하며, 자기에게 부과된 복수의 사명을 지연시키는 비겁자이다. 그는 보초들이 무서워하고 따라가지 말도록 만류하는 유행을 뒤쫓아 그 정체를 파헤치려는 용기와 과감성, 순회 연극단이 궁정으로 내방하자 당장 그들을 이용하여 왕의 죄악의 확증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즉결과 행동, 그리고 막 뒤에서 숨어서 자기 말을 엿듣는 자를 당장에 찢어 죽이는 민활함과, 해적선에 단신 뛰어오르는 용기, 순간적으로 왕의 사신을 바꿔치고, 자기를 죽음의 길로 호위해 가는 두 스파이들을 대신 사지로 보내는 기민함, 그리고 대단원에서 Laertes와의 검술시합에 쾌히 응하며, 감추어진 음모가 폭로되자 왕에게 달려들어 적이 마련한 칼과 독약으로 처치하고 마는 과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Horatio에게는 언제나 은근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배우들과 같은 옛 지기를 마지하자 가장되지 않은 충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한다. Rosencrantz와 Guildenstern

23) T. M. Matterson, *Hamlet op. cit.*, IV, iv, 202-209.

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따뜻한 우정으로 대한다. 이렇게 그는 따뜻한 인간애에 넘치지 않지만, 적에 대하여서는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하다. 왕에게는 시종 신랄한 독설로 대하며, Polonius에게는 야유와 냉소를 퍼붓고, 배반자가 된 두 친구에 대해서도 왕의 앞잡이 인 것을 안 후로는 조롱을 일삼으며, 그들을 사지로 보내고도 추호도 가책을 받지 않는다. 모친에 대하여서도 기절 일보 직전까지 잔인하게 공박한다. 그는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미워할 수 있다. Ophelia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지만 『Nunnery-scene』에서 보듯이 그녀를 참혹한 말로써 괴롭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심술궂고 냉정하다.

그는 남을 의심할 줄 모를 정도로 마음이 순박하고 너그러워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또 적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진한 면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까다로우며, 특히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다. 그는 정직하고, 또한 정직한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위장의 가면을 쓰고 남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만,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 마리의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의 섭리인 것을 깨달으며, 조용하고 단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총명하고 신중하며 일의 성사와 성과를 너무 세심히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둔하고 경솔하며, 충동적이고, 발작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그는 공명정대한 기품으로 누구에게서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 하나, 때로는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이기주의자 이기도하다. 그는 깊은 사색에 잠기는 철학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철학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있음을 시인하는 신비주의자이다. 이상과 같이 그의 성격에 있어서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Hamlet의 성격에서 일관성을 찾아 보기는 어려우며, 그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언뜻 생각하기에 모순도 있다. Hudson은 그의 성격에 대하여

In Hamlet himself we have little less than the whole
science of human nature drawn together and condensed²⁴⁾

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성격에 집약되어 있는 인간의 천성은 그것 자체가 원래 모순에 차 있는 것이다. 우리는 Hamlet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모순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에게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Hamlet을 한마디로 부르기는 어렵지만 굳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를 만능의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서로 죽이고, 사랑을 위하여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미쳐버렸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과,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놀라운 일들을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합정을 만들어 그들을 빠지게 하였다. 자기들의 권력을 방어하고 권력에 대항하려 반역을 하였다. 그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세워 자신들을 구하고 싶었다. 비록 그들의 범죄가 중대하였다 해도

24) 김광호, *op., cit.*, p. 76. (재인용)

그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위하여 일어섰다. 마침내 한 활기에 찬 젊은이가 하나 나와서 매력 있는 웃음을 띠면서 “이 시체들을 치워라. 이제는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²⁵⁾ 이렇게 이 대단원의 극은 끝이 난다. Hamlet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조예와, 다면의 재능을 지닌 극작가 Shakespeare의 천재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의 손으로도 아마 창조될 수 없었을 위대한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재남, Shakespeare 論, 영미희곡수필평론, 영미문학총서 5, 428(1967)
2. 오화섭, Hamlet 영미작품론, 영미어학총서 7, 430(1967)
3. Kott, Jan,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W.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372(1974)
4. Matterson, T.M.,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The World Syndicate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097(1930)
5. 김재남역, 셰익스피어, 세계문학전집 35, 486(1961)
6. 이덕수역주, 햄릿, 형설출판사, 서울, 419(1993)
7. 김광호, “Hamlet 재평가”,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38, 146(1971 여름호)
8. 이재호, “現代人에게 있어서의 Hamlet의 魅力”,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9, 104(1966 가을호)
9. 이정완, “Hamlet As a Scapegoat”,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5, 118(1968 봄호)
10. 이정호, “A Note on Hamlet’s Revenge”,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5, 105(1973 봄호)

25) Jan Kott, *op. cit.*, p. 73.

A study of Hamlet's character

Cho, Kwon-soo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College

> Abstract <

No Dane of flesh and blood has been written about so extensively as Hamlet. Shakespeare's prince is certainly the best known representative of his nation. Innumerable glossaries and commentaries have grown round Hamlet, and he is one of the few literary heroes who live apart from the text, apart from the theatre. His name means something even to those who never seen or read Shakespeare's play.

There are many subjects in *Hamlet*. There is politics, force opposed to morality; there is discussion of the diverg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of the ultimate purpose of life, there is tragedy of love, as well as family drama; political, eschatological and metaphysical problems are considered. There is everything you want, including deep psychological analysis, a bloody story, a duel, and general slaughter.

In Hamlet, there are a few characters, too, as in common people. He is alone because his father died and mother remarried his uncle. He is too young to experience deep moral doubts, but he is not a simpleton. He wants to know if his father has really been murdered. He cannot fully trust the Ghost, or any ghosts for that matter. He looks for more convincing evidence, and that is why he arranges a psychological test by staging the crime that has been committed. He loathes the world, and that is why he sacrifices Ophelia. But he does not flinch from a coup d'état. He knows, however, that a coup is a difficult affair. He considers all pros and cons. He is a born conspirator. "To be" means for him to revenge his father and to assassinate the King; while "not to be" means -to give up the fight. He is more than the heir to the throne who tries to revenge himself for the murder of his father. The situation does not define Hamlet or at any rate does not define him beyond doubt. The situation has been imposed on him. Hamlet accepts it, but at the same time revolts against it. He accepts the part, but is beyond and above it.

In the process we can see his characters: He was in lone situation, and was a perfectionist. He was a real religious man, but he was the obsessed for the Ghost. He was an existentialist and so brave.